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빼돌려 복제 시도

공범 반도체 직원·삼전 협력업체 직원 등 6명 불구속기소 반도체 BED·공정배치도·공장설계도면 등 부정사용 혐의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복제판 공장을 만들려고 한 삼성전자 전 임원 등 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삼성전자 전 상무 A(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C(60)씨 등 5명과 공장 설계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삼성전자에서 18년간 반도체 분야 상무로 근무했던 A씨는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판매업체인 B회사로부터 투자받아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2018년 8월부터 2019년 초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배치도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부정 취득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반도체 공장 BED란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인 '클린룸'을 불순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반도체 제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환경조건을 담은 기술이다.

공정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및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최적의 반도체 제조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30년 이상 오랜 기간 시행착오 및 연구개발,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얻은 자료로 최소 3000억원~최대 수조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특히 BED와 공정배치도는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의 공정 관련 기술'로서 관련 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등에서 근무하며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권위자로 꼽히는 A씨는 중국 및 대만의 대규모 자본과 결합해 중국·싱가포르에 반도체 제조 회사를 세우며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여명을 고용했다.

그는 이후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에게 삼성전자의 설계자료 등을 입수해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했고,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감리회사 직원으로부터 공장 설계 원본 자료를 부정 취득해 자신들의 공장 설계사에 보내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반도체 공장 BED 자료의 경우 삼성전자 전 직원 C씨가 근무 중 얻은 자료를 퇴사 시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A씨가 설립한 회사로 탐정으로 영업된 뒤 삼성전자 자료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보고해 부정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씨의 유출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만 적용돼 기소됐다.

이들이 세우려 한 복제판 공장은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이었다. 해당 공장은 투자가 최종 불발되면서 실제 건설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2019년 8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첩보를 입수했으나 A씨 등이 중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다 올해 2월 A씨가 입국하면서 관련자 조사와 휴대전화 압수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가 5월 그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게 됐다.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반도체 공장 자체를 복제해 건설, 중국 내 반도체 제조·양산을 시도한 사건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흔들며 경제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 사건 공정배치도 자료가 유출된 경우 등에 대한 보안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기업과 국가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반도체 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여수경찰-대한노인회, 업무협약식 체결

여수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10시 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 여수경찰서-대한노인회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무안경찰, 소형경광등 활용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 추진

무안경찰서는 도로구조상 급커브·급경사 구간과 같은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점에 소형 경광등(솔라 뱅뱅이)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화순경찰, 지역치안 협력 위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

화순경찰서는 최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화순군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회의를 개최하였다.

완도=기동채본부



완도해경, 조태선 순경 6월 '최고 해양경찰' 선정

완도해양경찰서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안전펜스 설치 등을 통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한 마량파출소 조태선 순경을 6월 최고 완도해양경찰인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완도=기동채본부



전남서부보훈지청-전라남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국가보훈부 전남서부보훈지청은 전라남도교육청과 6월 9일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보훈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광주 동부소방, 전통시장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광주동부소방서는 최근 대인시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추후 남광주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슬비기자

한동훈 “‘돈봉투’ 적나라한 물증 있어”...체포동의 가결 요구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돈 봉투가 전달과 관련한 적나라한 물증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12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살포하는 데 연루된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 장관은 “범행 과정에서의 여러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다수의 통

화녹음 파일이 있다”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이정근씨가 윤관석 의원에게 돈봉투 10개씩을 2차례에 걸쳐 전달한 때마다, 그 자금을 제공한 박용수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윤 전달했음’, ‘윤 잘 전달’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그대로 남아 있다”며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정보, 국회 출입 기록도 있다”고 밝혔다.

물적 증거뿐만 아니라 진술 증거가 충분하다고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정근, 강래구, 사업

가 김모씨 등 민주당 송영길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각각 위 물증(녹취파일 내용)들과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현재 돈 봉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에 대해 “금품 액수 6000만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돈으로 표를 사고 파는 것은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 직전 민주



당 소속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뿌린 혐의, 이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1100만원을 마련하고 본인도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이슬기자**

롯데월드타워 72층까지 ‘맨몸등반’ 영국 국적 등반가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 “구체적 범행 경위 및 동기 등은 조사 중”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 등반한 영국 국적의 등반가 조지 킵 톰슨(23)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톰슨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롯데월드타워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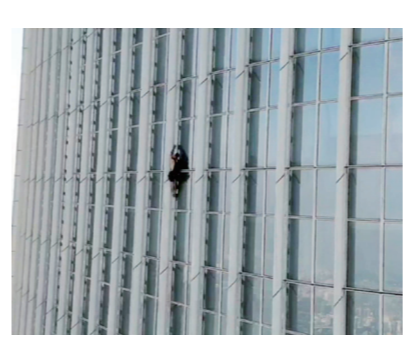
톰슨은 지난 2019년 런던 최고층 건물인 ‘더 샤드’를 무단등반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나 동기 등은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 송파소방서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 타워 서측을 등반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량 11대와 인원 54명을 출동시켰다. 서울 송파경찰서와 송파구청 등에서도 인원 39명, 차량 6대를 투입했다.

톰슨은 경찰·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등반을 계속했다. 그는 오전 8시4분께 이미 타워 17층을 통과하고 있었고, 오전 8시47분께에는 72층을 돌파했다. 총 123층인 롯데월드타워 5분의 3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추락에 대비해 건물 주변에 에어매트를 설치한 뒤,



건물 외벽 설치를 위해 설치된 곤돌라를 타고 톰슨에게 접근했다. 그는 오전 8시52분께 곤돌라에 탑승했고, 9시 2분께 구조 완료됐다. 이후 경찰로 넘겨졌다.

한편, 롯데월드타워를 오르다 경찰에 체포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18년 6월에는 프랑스 출신 유명 안벽 등반가 알랭 로베르가 롯데월드타워를 오르다 경찰에 체포됐다.

로베르는 2011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두바이 부르즈할리파(828m)를 6시간 만에 완등했고, 이외에도 아부다비 국립은행(202m), 대만 타이베이 101(508m), 홍콩 청룽센터(283m) 등을 등반해 ‘스파이더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당시 송파경찰서는 그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이슬비기자**



찾을질 배우는 어린이들

12일 오전 대구 중구보건소에서 직원이 관내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찾을질 교육을 하고 있다.

12일 오전 대구 중구보건소에서 직원이 관내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찾을질 교육을 하고 있다.